

친환경 교통 속도...광주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국비 지원액의 10~20% 추가...2030년까지 4만3천대 보급 목표 충전시설 확대·수소버스 핵심부품 교체... '저공해화' 사업도 진행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광주시가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춧했던 친환경 자동차의 확산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의 경우 청년(19~34세)에게 국비 지원액의 20%를, 전기 화물차의 경우 농업인에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광주지역 전기차는 2020년 3667대, 2021년 5872대, 2022년 9913대, 2023년 1만 3152대, 2024년 1만 5633대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증가세는 다소 주춧했다.

수소차 역시 2020년 724대, 2021년 960대, 2022년 1256대, 2023년 1333대, 2024년 1380대로 증가 추세지만, 증가 폭은 감소하고 있다.

전기차는 배터리 화재, 금리 인상, 반도체 수급 지연 등의 문제로 2023년부터 보급률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광주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 규모와 대상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친환경 차 보급 확대, 친환경 차 기반 조성(충전수요 맞춤형), 친환경 차 전환(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등 3가지 추진 전략을 세웠다.

광주시는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재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소는 2024년까지 3748대가 추가로 설치됐으며 광주에 총 1만 1613대가 마련돼 있다. 대부분이 민간 업체가 설치한 것으로 광주

시 자체 설치 비율은 1.7%(207대)에 그친다.

최근 전기 이륜차 사용도 늘어나고 있지만 전기 이륜차 충전 시설이 민간에서 설치한 9곳뿐이라는 점에서 충전 인프라도 확대 할 방침이다. 올해 광주지역 편의점과 배달사무실 등 10곳의 충전 시설 설치 지원할 계획이다. 또 3억 5000만원을 들여 광주지역 수소 버스 5대에 한해 고가 핵심부품에 대한 교체도 지원한다.

광주시는 '제1차 광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4만 3000대 보급(전기차 4만대, 수소차 3000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친환경 자동차 전환을 위해 '저공해화'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광주시는 친환경 자동차 전환을 위해 노후차의 조기폐차,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등 그동안 유지해왔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조기폐차는 3만 1417대 이뤄졌으며 경유차 7979대, 건설기계 769대에 저감장치가 부착됐다.

광주시는 2030년까지 3개 사업에 대해 5만 8535대 누적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5등급 대상을 경유에서 휘발유와 가스 차량으로 확대한다.

한편 광주에는 총 7개 수소충전소(진곡·동곡·임암·백진·월출·장동·신촌)가 운영 중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영산강유역청, 229억 투입 상류지역 오염원 집중 매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올해 수계관리기금 229억원을 들여 광주·전남 상수원 인근 토지를 매입한다.

1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광역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올해 수계관리기금 229억원을 들여 광주·전남 5개 댐(주암·동북·상사·수어·탐진호) 상류지역 오염원을 집중 매수한다.

2003년 시작된 토지매수사업은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 7.4배에 이르는 21.3㎢를 매수했다.

매수한 토지는 오염원을 제거한 뒤 수변녹지로 조성해 생태학습장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중형차 3243대가 1년간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 9046t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영산강청의 설명이다.

매수 대상은 매도 신청 토지 중 상수원 유입 하천으로부터의 거리와 오염부하량 발생 정도 등 배점 순위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최종 결정된다. 상수원 인근 토지 매도를 원하는 경우 영산강청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봄철 건조기, 광주·전남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 통제

봄철 건조기를 맞아 광주·전남지역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가 출입 통제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달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23구간 581km에 대해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무등산, 지리산, 월출산 국립공원은 이달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통제된다.

무등산은 3개 구간(인양봉 전망대·군부대 정문, 광일목장 입구·신선대 갈림길, 선주암 삼거리

·서인봉 갈림길),이며 월출산은 무위사부터 미양재까지 1개 구간이다.

지리산은 26개 구간이 통제된다.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통제 탐방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서구청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영화관람 문화체험'에 참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최근 영화를 관람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광주시 서구에서 추진하는 민관협력 커리큘링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이웃과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고 문화 소외 계층에게 여가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됐다. <광주시서구청장애인복지관 제공>

맛별이 긴급돌봄 '아픈 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남구,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협약

광주시 남구가 맛별이 부부의 아이가 갑자기 아플 경우 대신 병원에 데려가주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남구는 11일 "맛별이 등으로 자녀의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진료부터 귀가까지 돕는 '원스톱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병원동행 서비스는 지역사회 맞춤형 돌봄 시스템 구축과 맛별이 등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으뜸호 통합돌봄 신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남구는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협약을 맺고 플랫폼 구축과 돌봄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서비스 대상은 남구에 거주하는 만4~18세 자녀

를 둔 부모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담 인력이 차량을 이용해 가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방문, 진료 및 약을 수령한 뒤 귀가까지 돕는다. 부모에게는 전화를 통해 조치 결과를 알린다.

아이 한명 당 연 50회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진료비와 약제비는 보호자 부담이며, 평일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 또는 광주여성가족재단으로 전화해 회원가입을 하면된다. 이 과정에서 병원진료비와 약제비 결제를 위한 3만원을 선입금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차감 방식으로 정산된다.

남구 관계자는 "해당 사업 추진으로 돌봄 공공성 강화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동구, 3월부터 노후한 저층 주택 45채 집수리

산수동 친환경자원순환센터 '더 삶'

광주시 동구가 노후한 주택 45채를 선정해 수리를 지원한다.

11일 동구에 따르면 노후주택이 밀집한 산수동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일원에 추진 중인 '더 삶'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 대상 주택 45채를 최종 선정했다.

'더 삶'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은 자치구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11월 사업에 참여할 대상 가구를 모집해 210채가 접수했다.

동구는 210채를 대상으로 노후도와 실 거주기간, 연령, 소득수준, 공공성을 고려해 1차 74채를 선정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집수리 시급성과 주

거환경 개선 효과를 평가하고자 집수리 전문가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동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재생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45채 대상으로 착공신고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집수리 전문가와 함께 준공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며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될 사업을 위한 보완 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입택 동구청장은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의 집수리에 대한 열망이 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서구 '슬로우조깅단' 운영

28일까지 만성질환자 대상

광주시 서구는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해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슬로우조깅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슬로우조깅은 걷기와 달리기 중간 속도로 관절 부담을 줄이면서도, 천천히 달려도 높은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동이다. 슬로우조깅단은 오는 28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상무시민공원 등 관내 공원에서 전문가의 지도로 참여자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운동을 마친 후에는 참여자들이 운동일지 작성과 SNS를 통한 운동 기록 공유하도록 한다.

서구는 운동 전·후의 건강상태 개선도와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기획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은주 건강증진과장은 "만성질환자들이 혼자서는 시작하기 어려웠던 운동을 슬로우조깅단을 통해 함께 하게 되고,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도 아래 안전하게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건강수명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건강문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 100세 실현을 목표로 '걸어서 100세까지' 실천을 위한 자율적 건강관리 기반 마련,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주민 건강 리더 양성, 걷기 활성화를 통한 주민 간 소통과 화합 도모 등 3가지 중점전략을 세워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